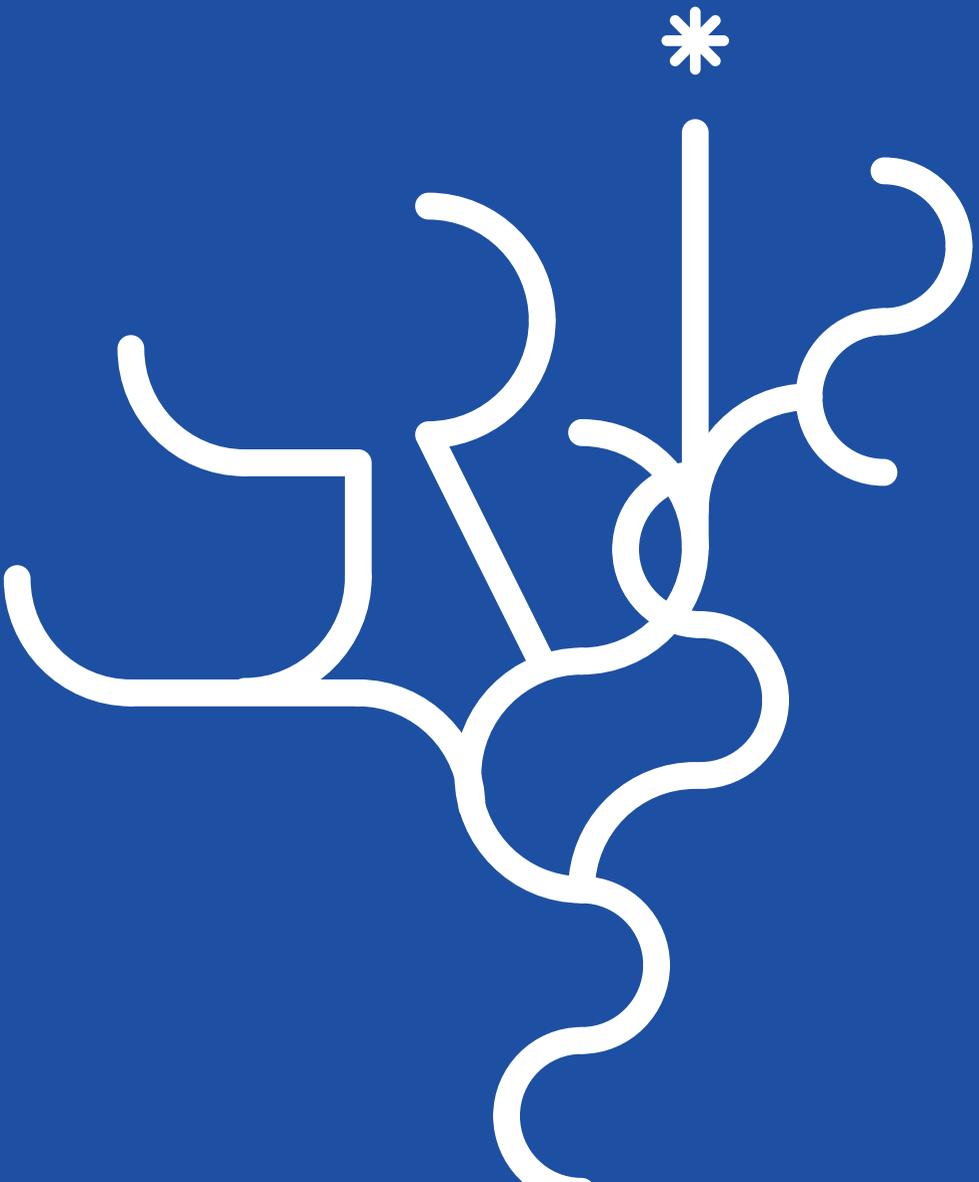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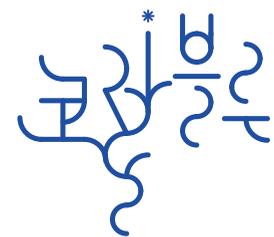


제주
바당
연산호
기록





제주
바당
연산호
기록





#01
제주 코랄
JEJU CORAL

p.08



#03
제주 바당을
지키자
SAVE OUR SEA

p.52



#02
코랄 블루
CORAL BLUE

p.26



#04
국가를 막아선
사진들
Photographs That
Stop the Country

p.64

An underwater photograph showing a vibrant marine ecosystem. On the left, there is a large, textured coral structure. To its right, yellowish-brown seaweed with long, thin blades drifts in the water. In the center and right, several green, feathery coral branches are visible. Numerous small, colorful fish, including some with yellow and blue stripes, are swimming throughout the clear blue water.

#01
제주 코랄
JEJU CO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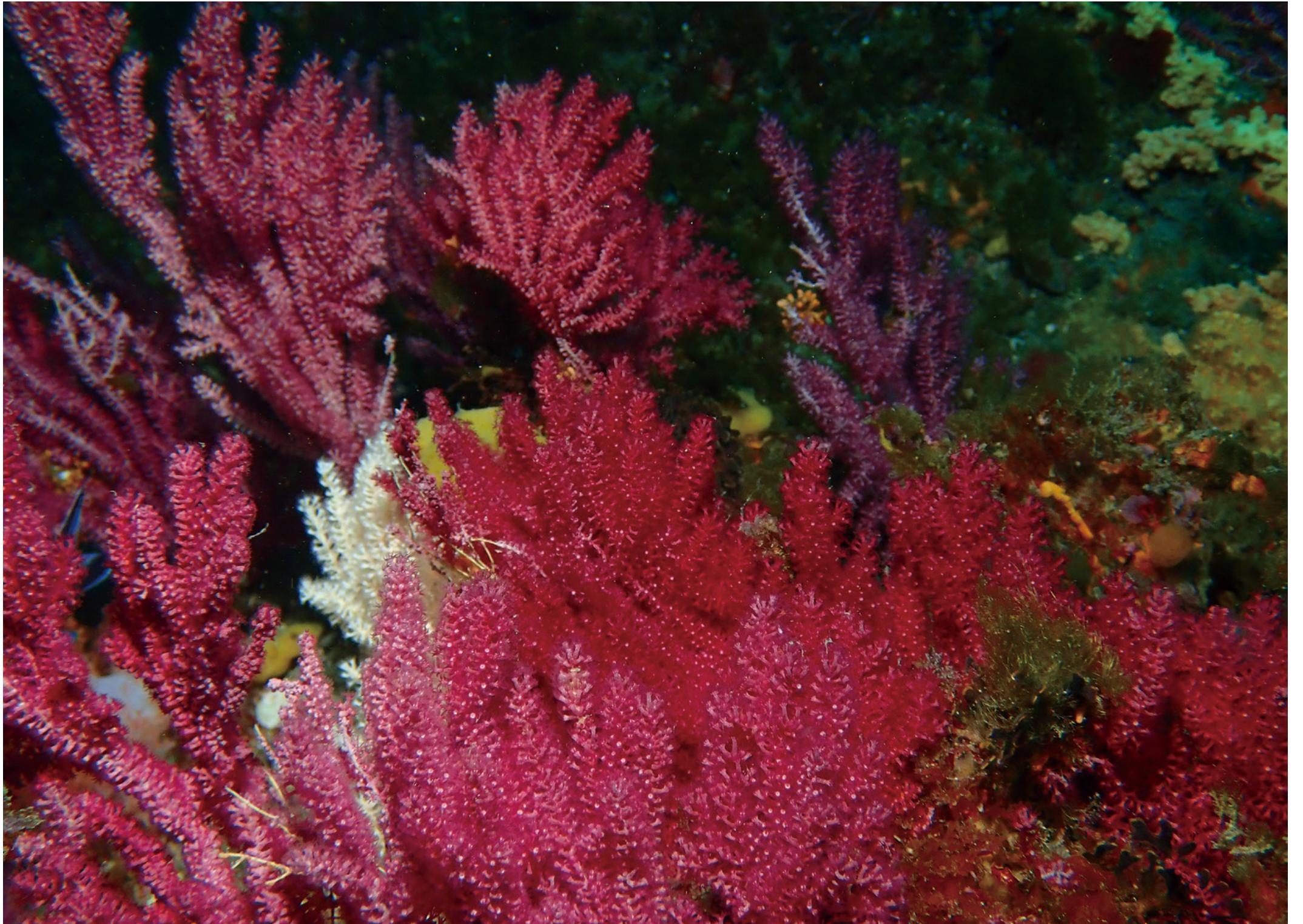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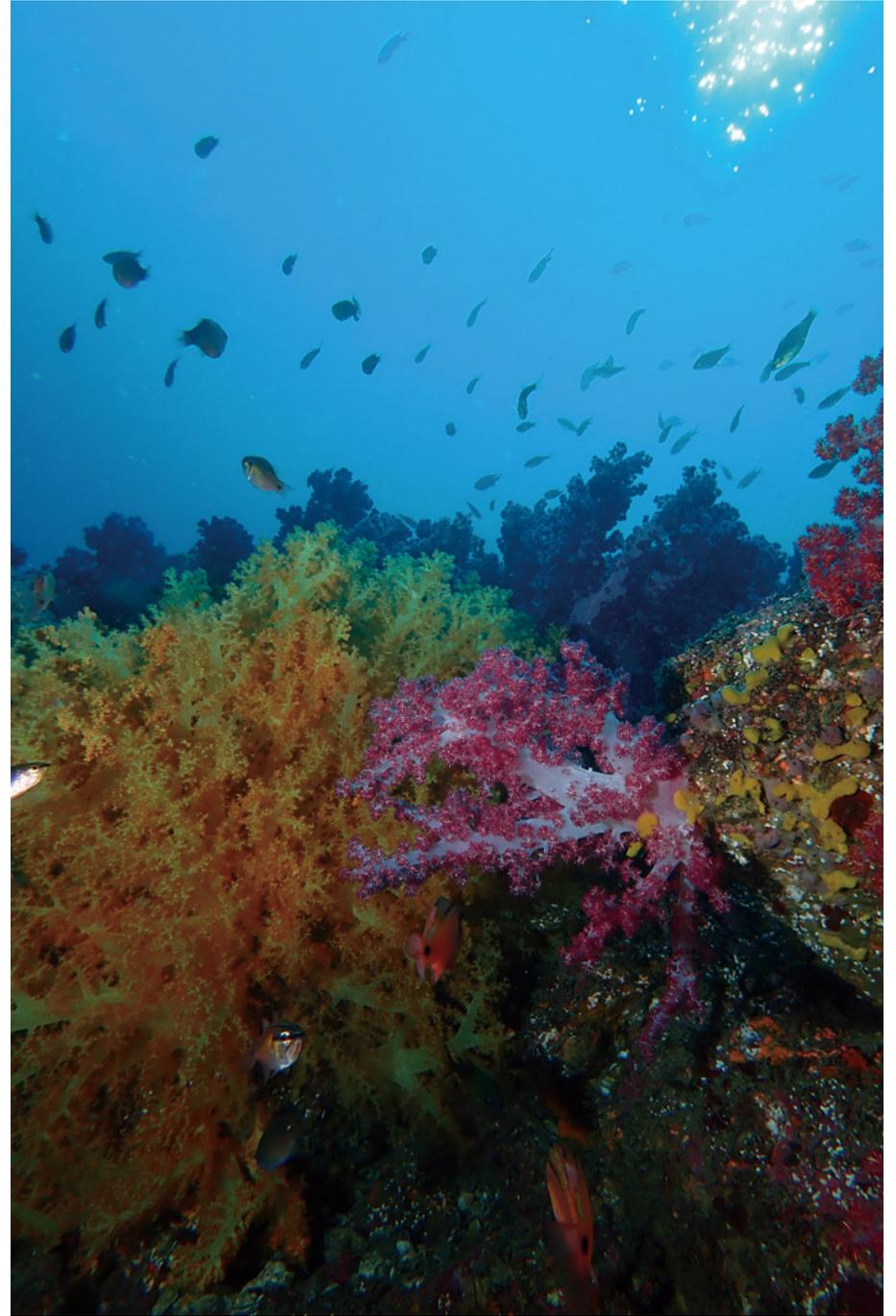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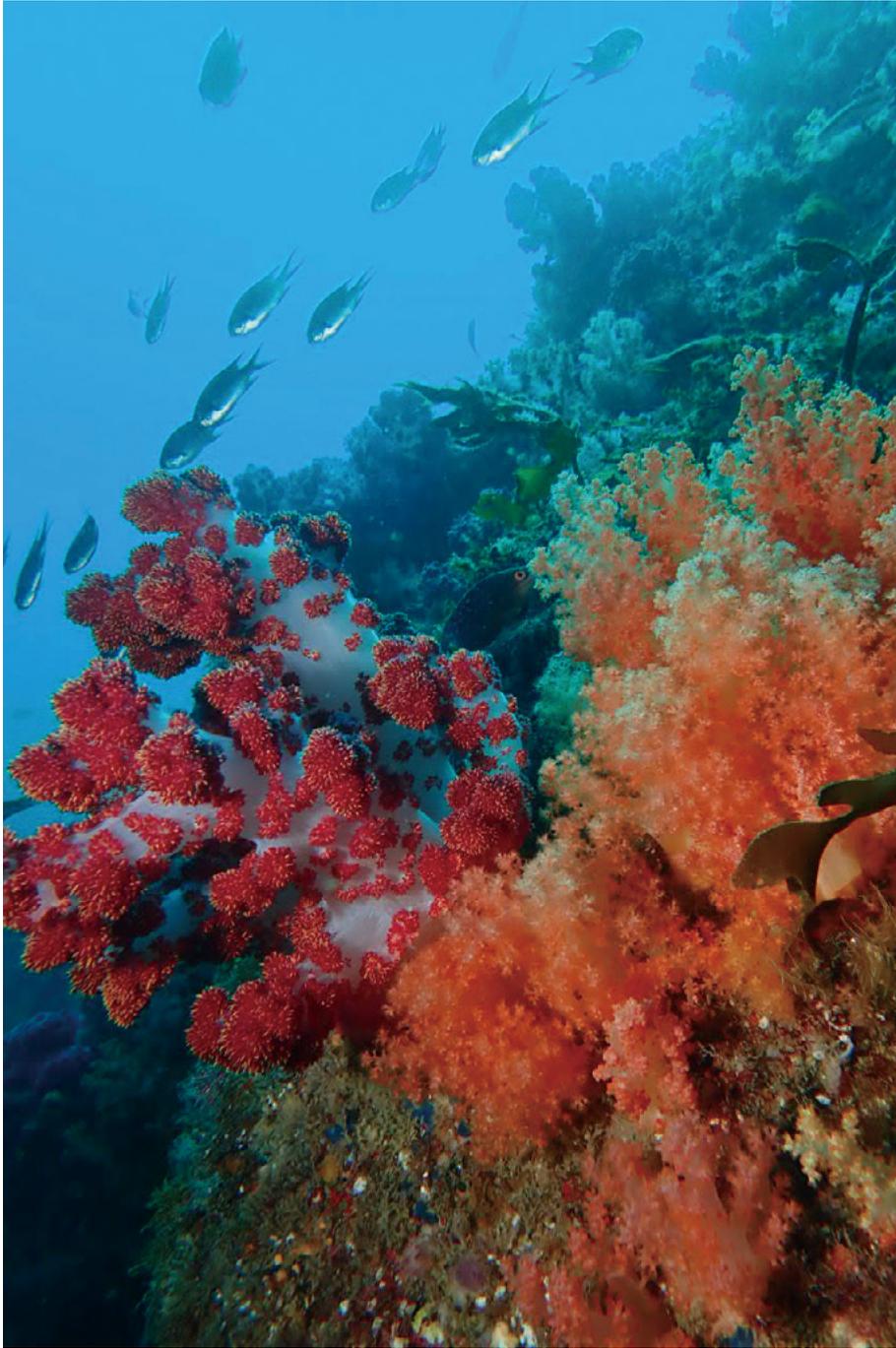
#01 제주 코랄 JEJU CORAL

연산호는 영어로 ‘soft coral’ 즉 ‘부드러운 산호’로 부드러운 겉면과 유연한 줄기구조를 갖춘 산호를 통틀어 말한다. 제주 남부 연안의 연산호 군락을 구성하는 산호총류는 무척추동물로 ‘바다의 꽃’이라 불린다. 특히 연산호류는 육상의 맨드라미를 닮았으며 부드러운 동물체로 수축·이완상태에 따라 크기 변화가 심하다. 연산호 군락지에는 돌산호류, 각산호류, 해양류 등의 다양한 산호류가 여러 가지 형상으로 어울려 서식하고 있다(출처: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442호 지정이유에서 발췌). 산호초의 면적은 지구 전체 바다면적의 0.1% 정도에 불과하지만, 모든 해양생물의 25% 이상이 서식처로 삼고 있을 정도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해역에 보고된 산호류는 약 160종이다. 이 중 연산호류와 해양류 등을 포함하는 팔방산호 무리가 약 89종, 말미잘류와 돌산호류를 포함하는 육방산호 무리가 약 71종이 있다. 제주도 해역에는 전체 산호 무리의 79% 정도인 126종의 산호가 분포하고 있다.

모든 연산호는 ‘군체colony’를 이루며 살아간다. 각각의 폴립이 모여 버섯 모양이나 나무 모양의 군체를 이루고, 또 군체들이 모여 산호 ‘군락reef’을 만든다. 폴립은 독립적인 하나의 생명이지만, 폴립polyp들이 모여 사는 군체가 있어야 살 수 있다. 스스로 전체이면서 동시에 전체의 부분인 것이다(출처: 제주연산호조사TFT, 『강정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 2017: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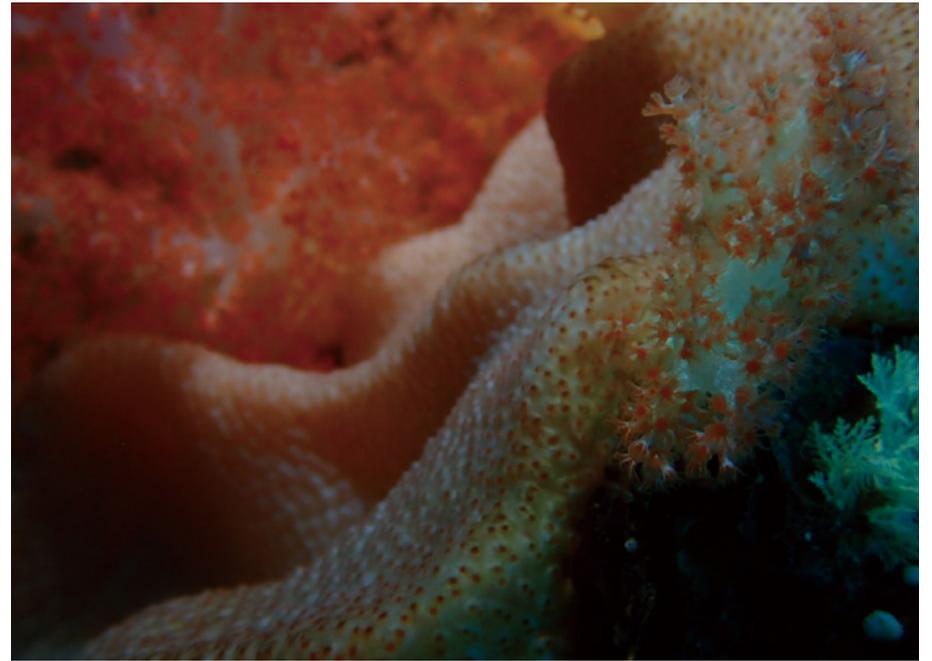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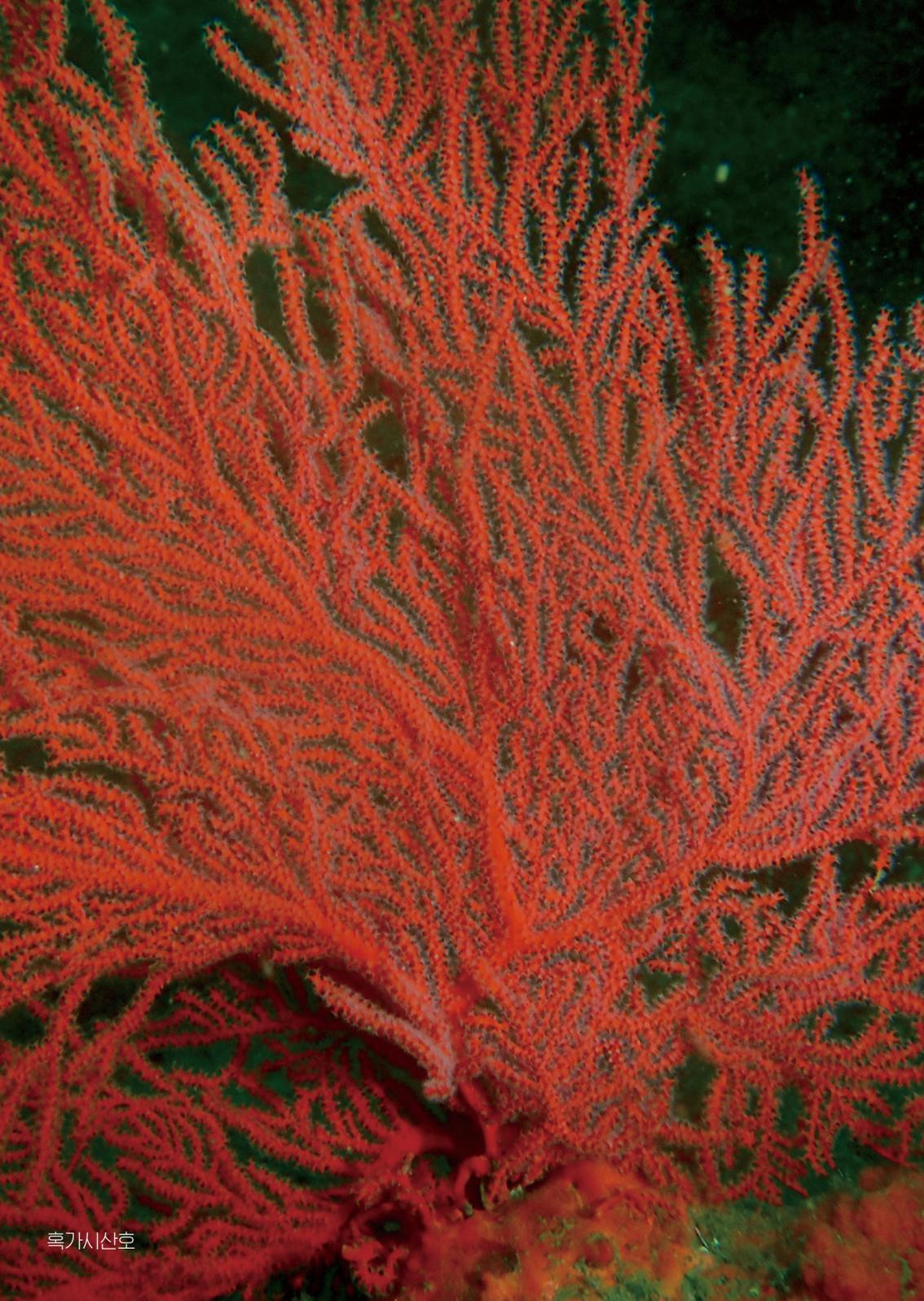






A large, branching coral structure, likely a species of staghorn coral, dominates the center of the frame. The coral is a vibrant reddish-orange color and has a complex, lattice-like structure with many thin, vertical branches. The background is a deep, clear blue, suggesting an underwater environment. To the right, there is a more dense and colorful coral reef area with various other coral species and some small fish. The overall scene is a rich, colorful underwater lands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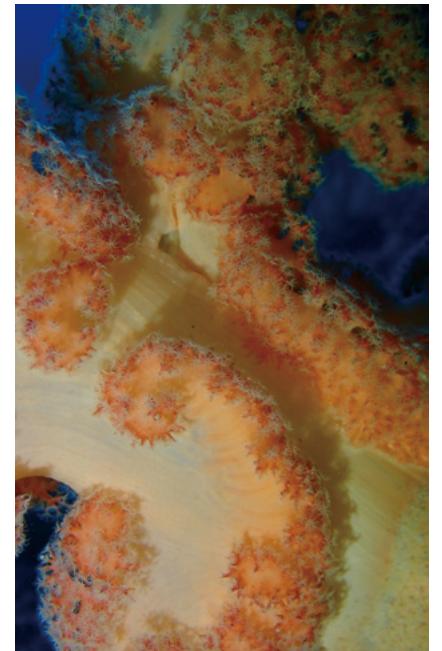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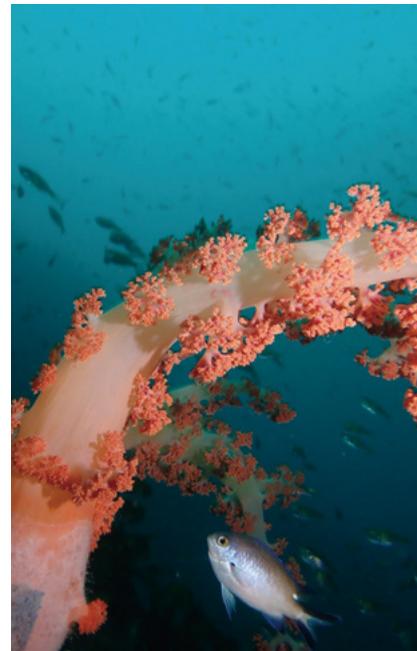
#02
코랄 블루
CORAL B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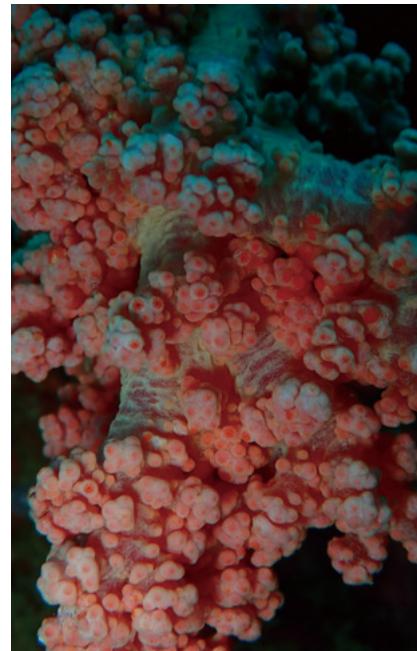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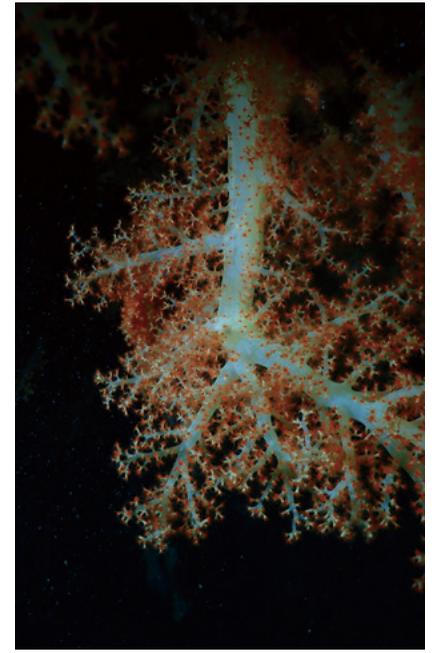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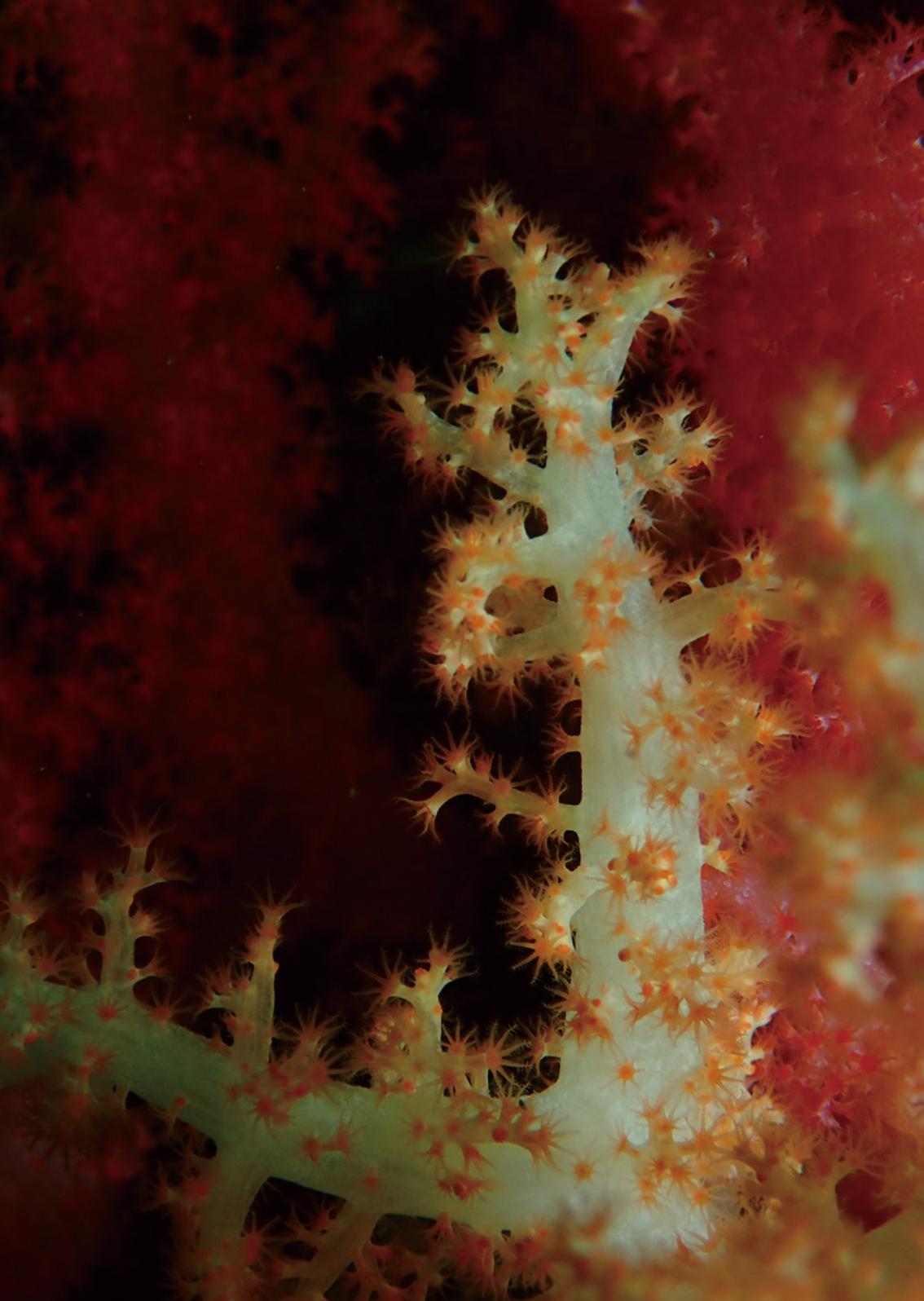
#02 코랄 블루 CORAL BLUE

강정의 дай버들은 개발과 국가 안보의 폭력적인 흐름 앞에 누구도 대변해주지 않는 비인간 행위자들, 스스로 목소리 낼 수 없는 생명들에게 목소리를 내어준다. 이들은 산호들이 사라져 가는 모습을 기록해왔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준다. 해군기지 방파제가 만들어지고 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얼마나 많은 산호 군락지가 폐사 되었는지, 천연기념물 해송이 이끼벌레와 담홍말미잘의 확산으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민군복합관광미항이라 속인 해군기지에 크루즈를 입항하기 위해 신규 30도 항로를 만들려고 했던 그 장소는 얼마나 아름다운 연산호 군락이 살고 있는 곳인지와 같은 이야기들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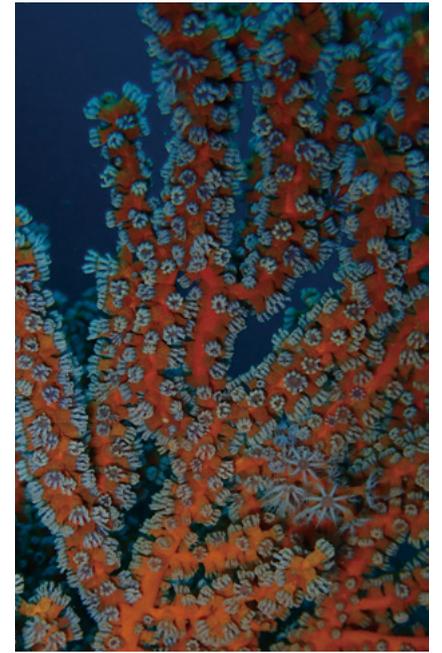
‘제주 바닷 연산호 기록’을 담은 책 『코랄 블루』는 제주 해군기지 준공 이후의 이야기를 전한다.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 속에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 제주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연산호와 물고기들, 그리고 그 곁을 오가며 이들의 생애를 지켜보는 дай버들이 있다. 해군기지는 이미 지어졌지만 그로 인한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정 дай버들의 관찰과 기록에는 끝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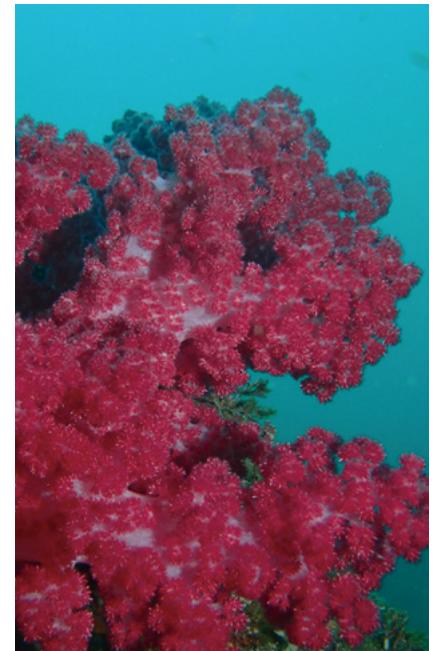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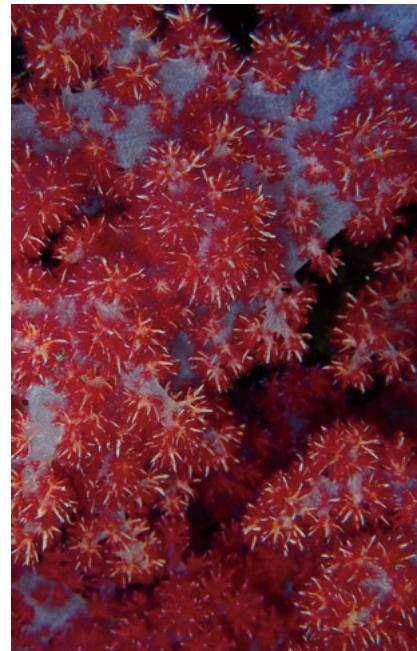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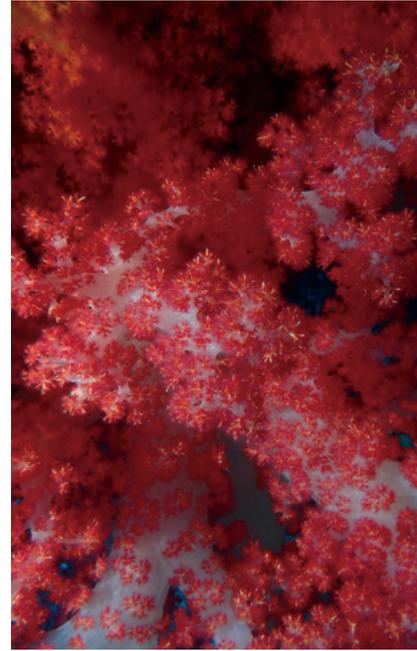
가시수지맨드라미



분홍바다맨드라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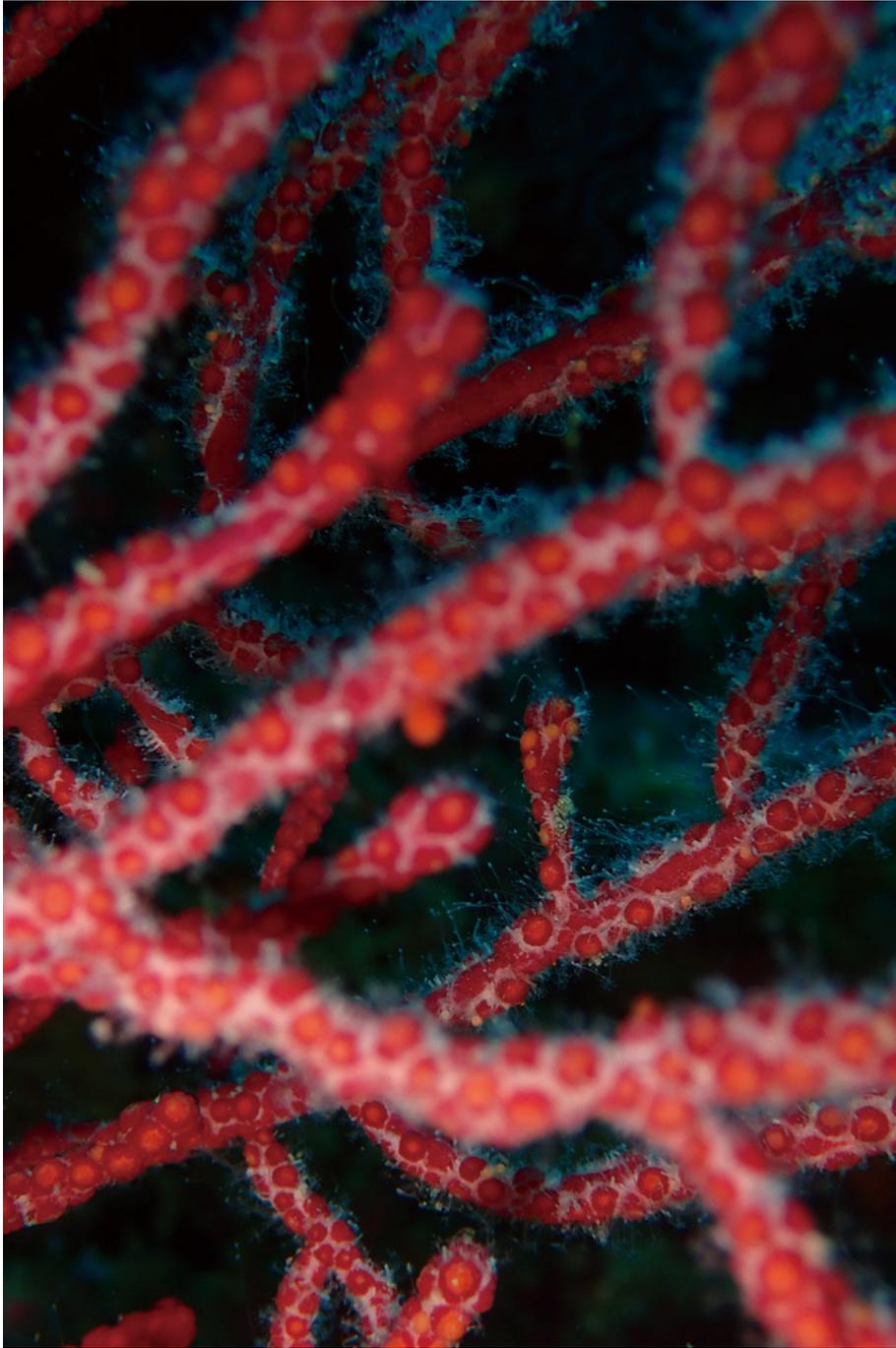
동근컵산호



큰수지맨드라미



해송/긴가지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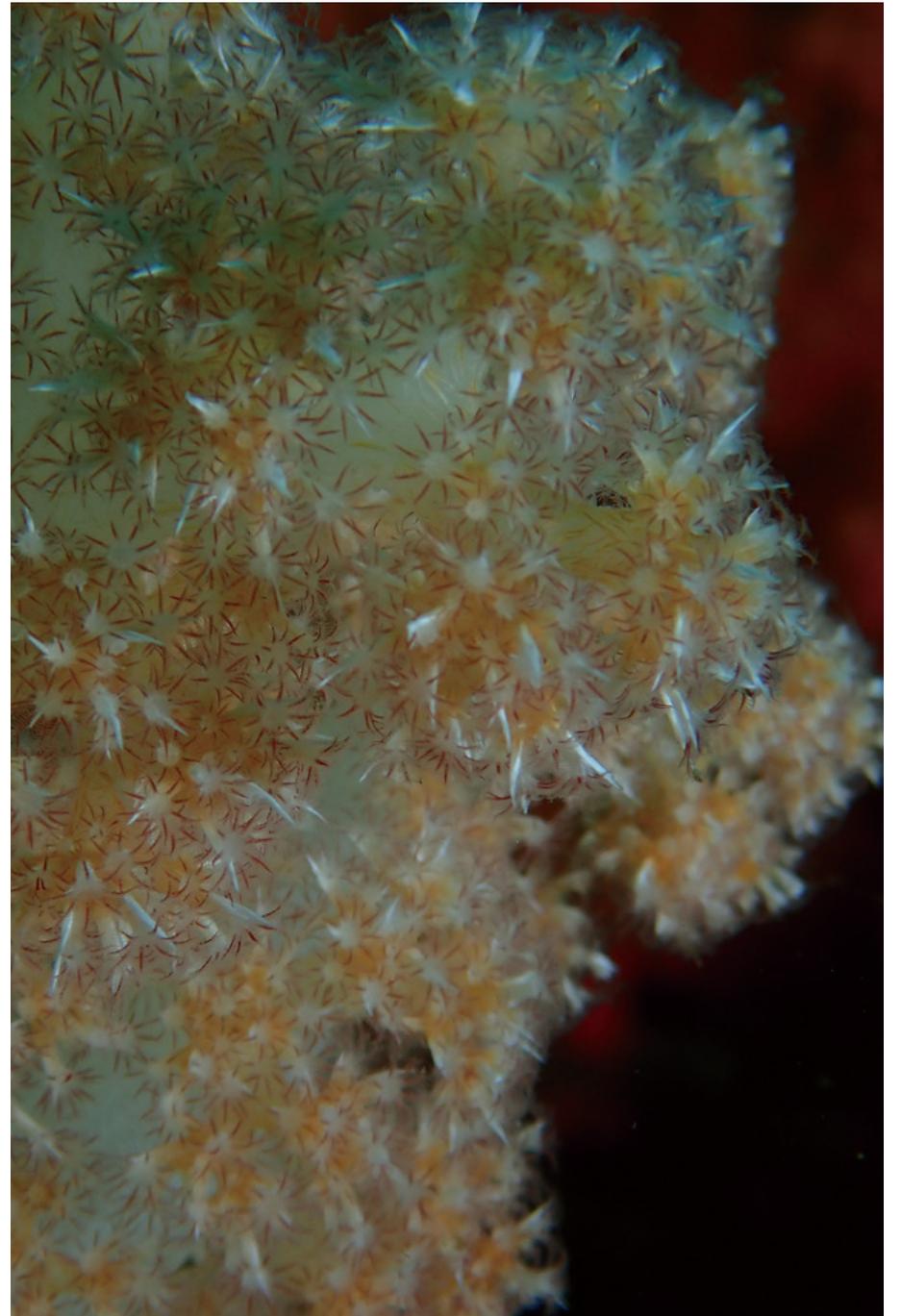
꽃총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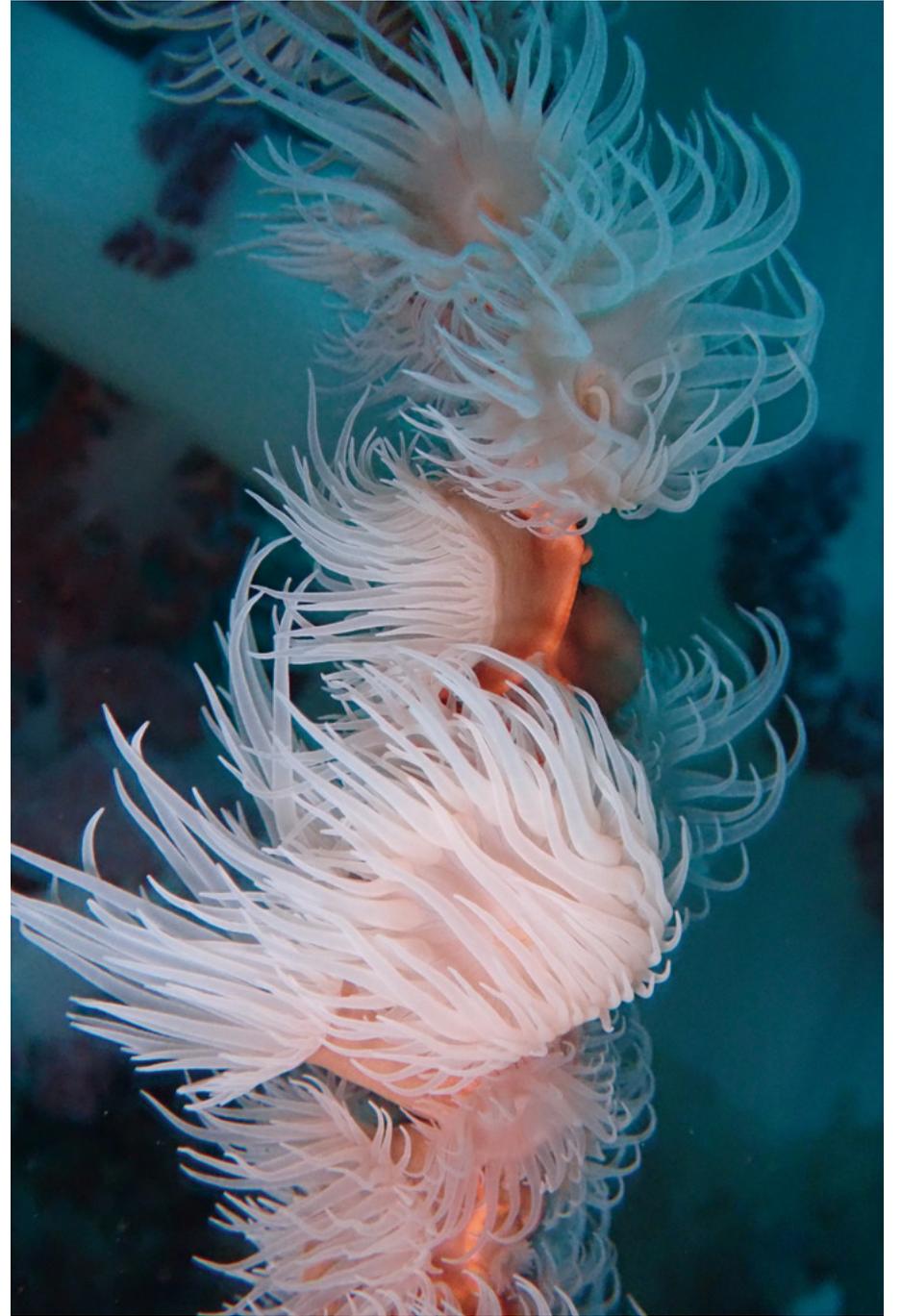
밤수지맨드라미



심자긴수지맨드라미



흰수지맨드라미



담홍말미잘



솜털갯지렁이



실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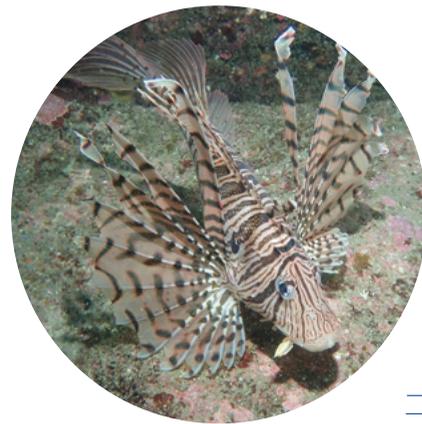


거품돌산호



그물코돌산호





갯민숭이류

그 외 생물들



#03

제주 바닷물을 지키자
SAVE OUR S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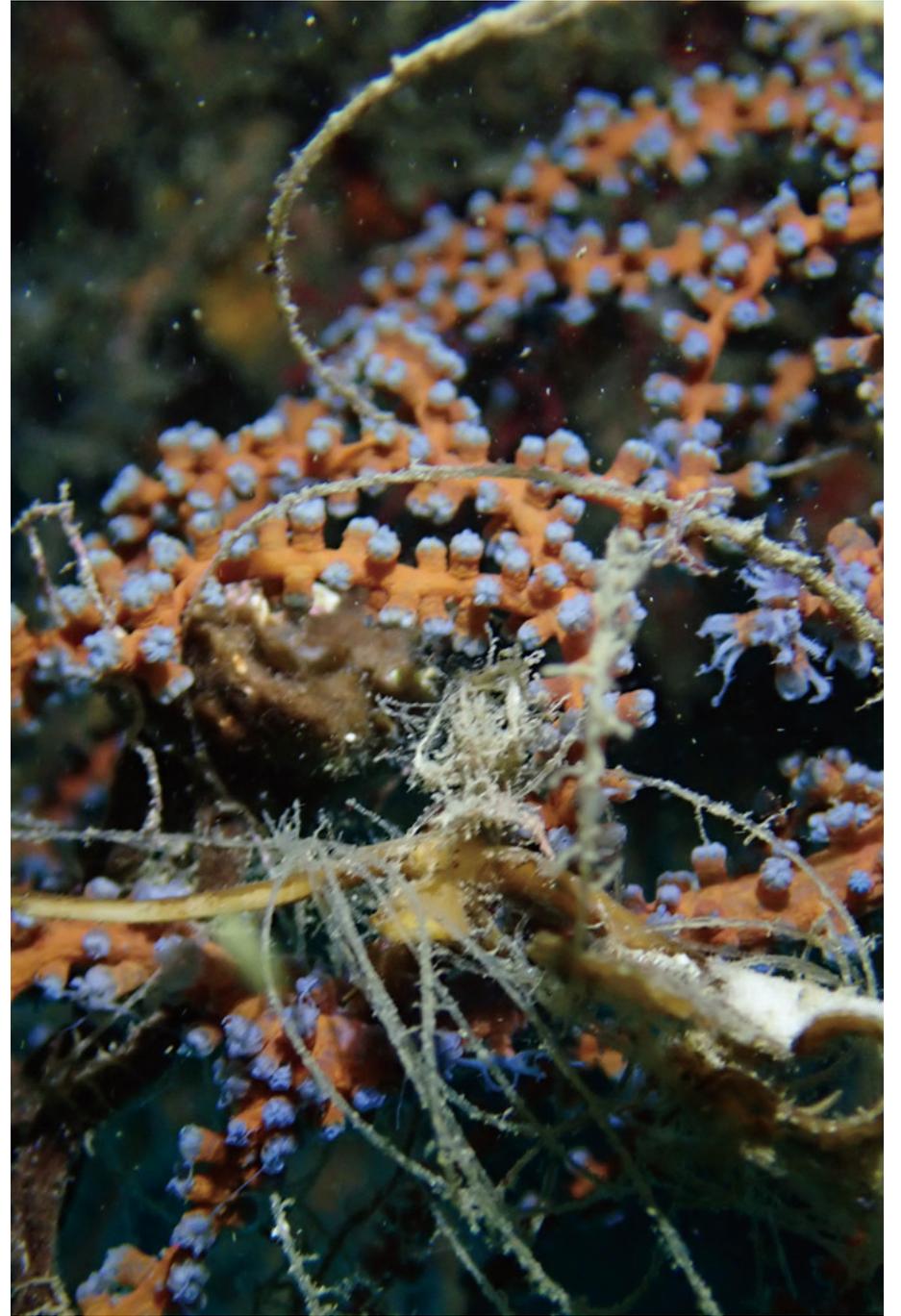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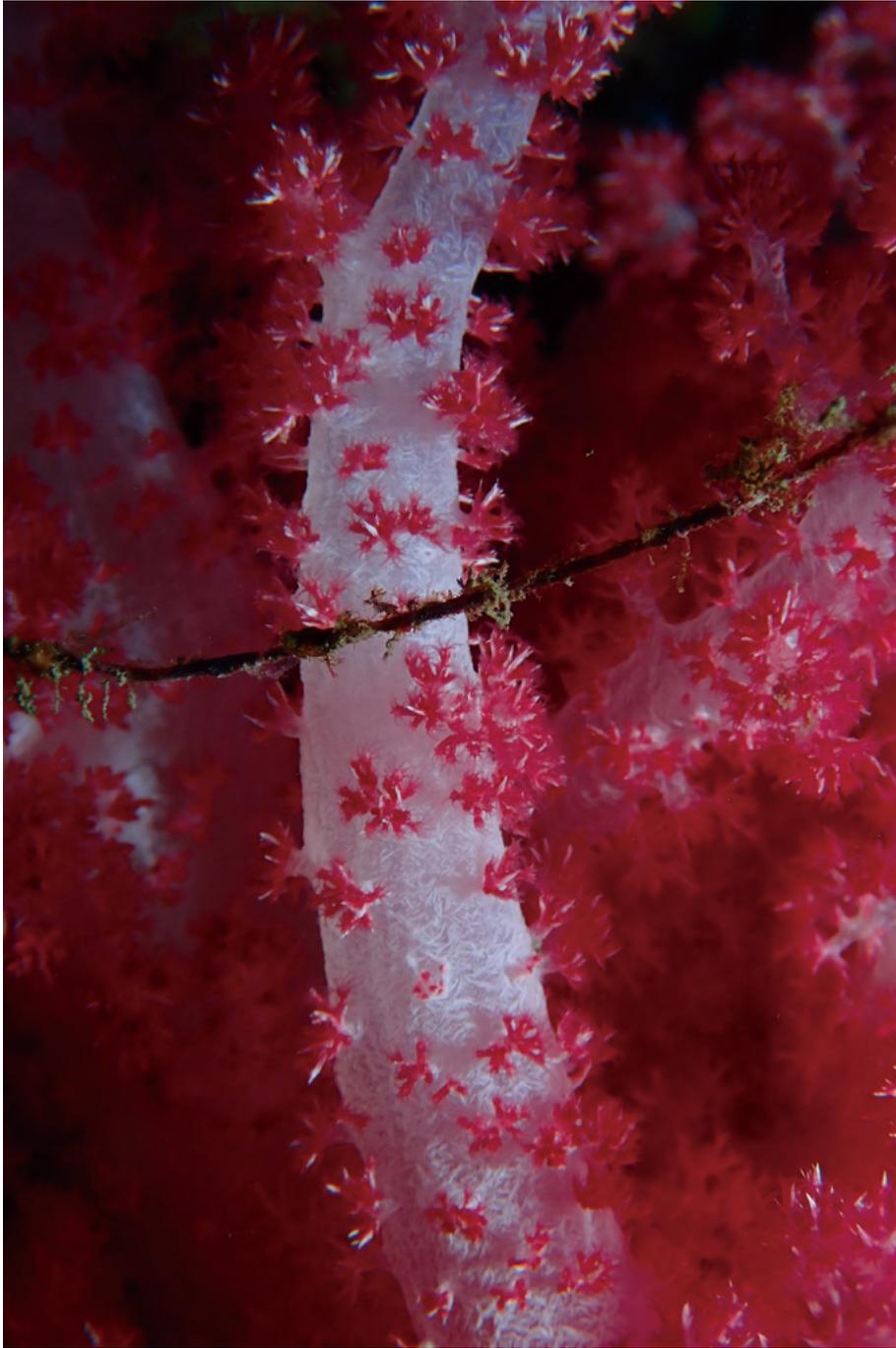
#03 제주 바닷가를 지키자 SAVE OUR S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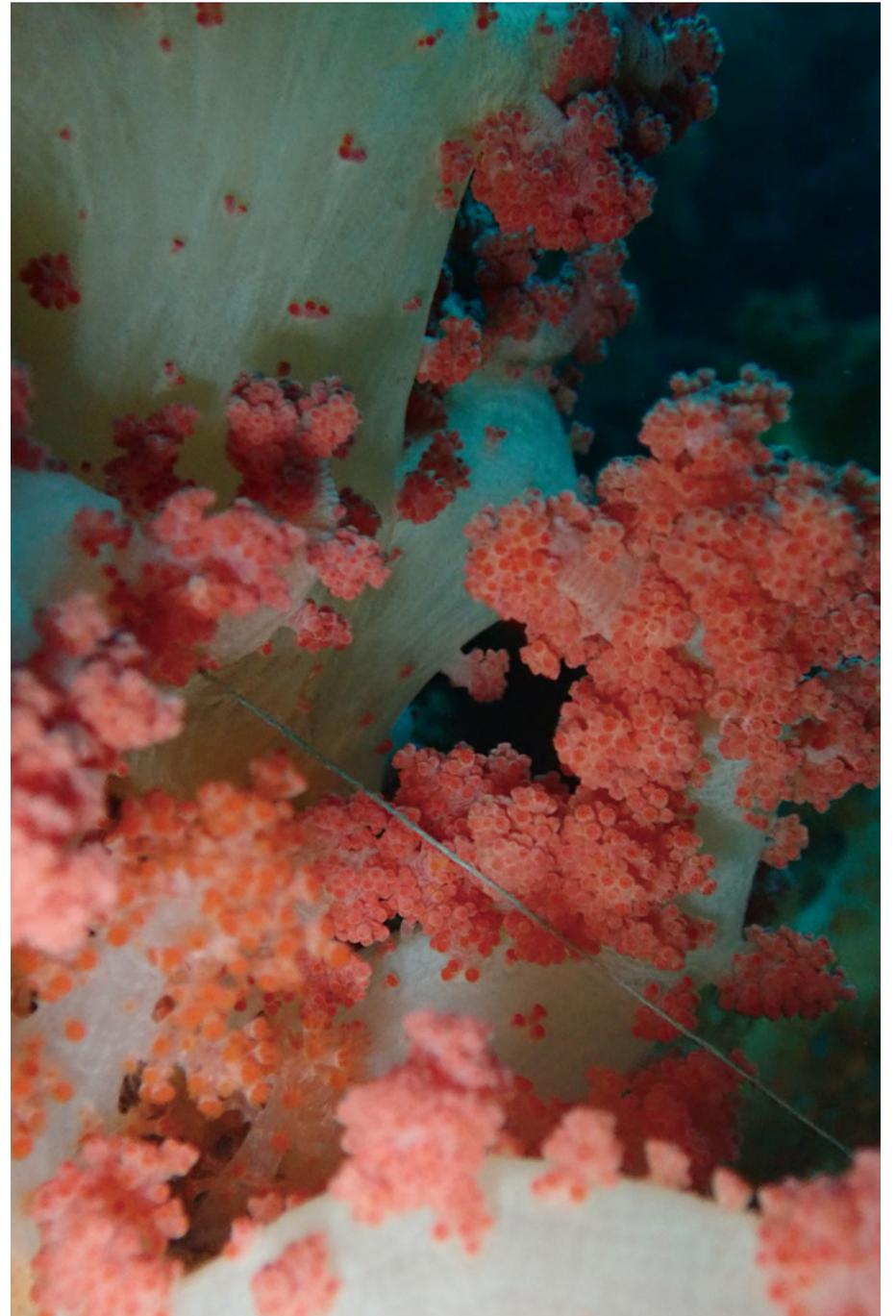
다이빙을 하다보면 해양쓰레기 뿐만 아니라 산호에 걸린 그물과 낚시줄, 밧줄 등을 쉬이 본다. 커터로 산호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줄을 풀고 끊어낸다. дайвер 또한 줄이나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한다. 무거운 해양 쓰레기를 들고 상승할 때는 부력 조절도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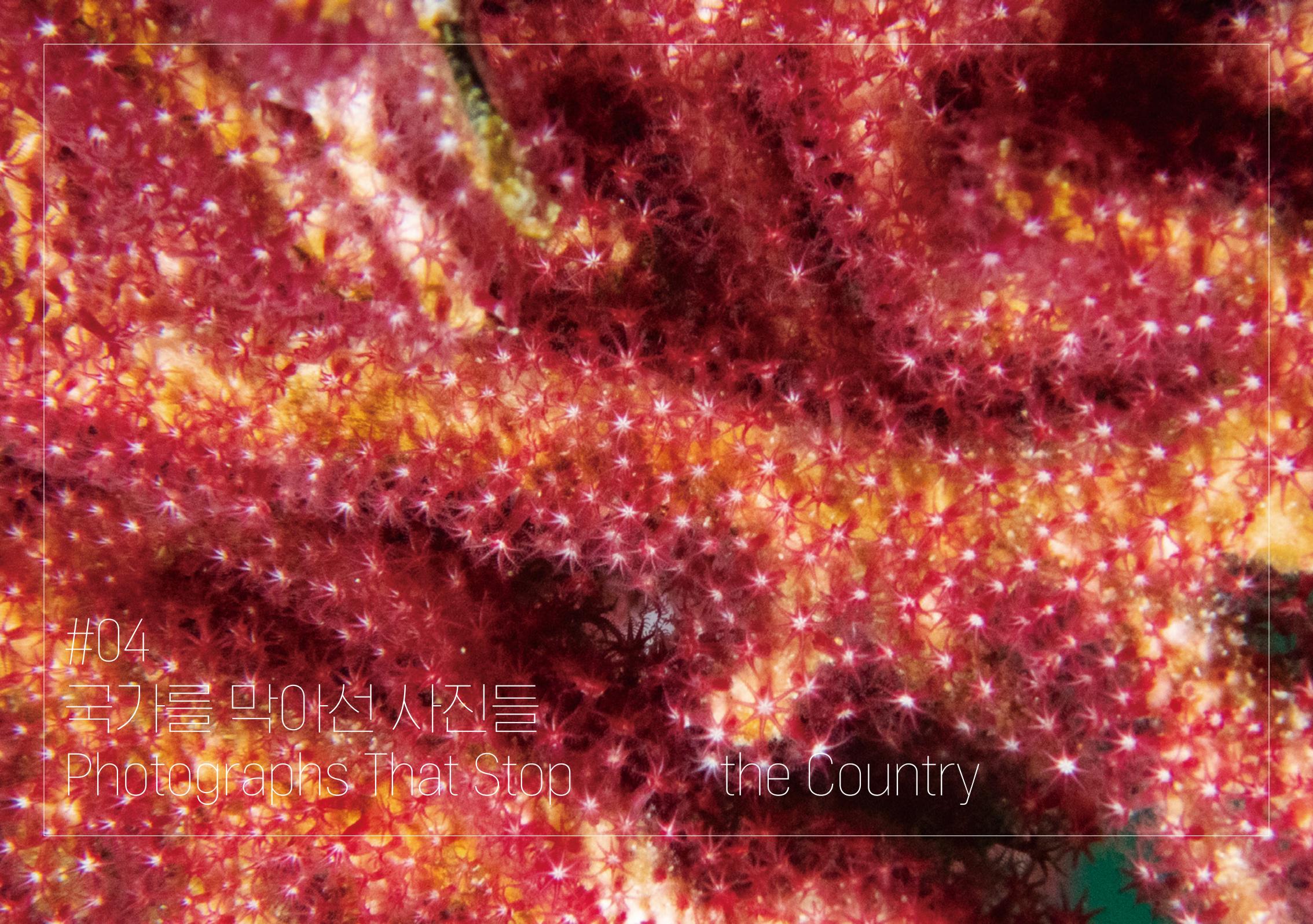
사랑하는 제주 바다에서 산호를 오랫동안 보기 위해 바다에 들어갈 때 마다 할 수 있는 만큼의 쓰레기를 줍고 산호에 엉킨 줄을 풀어낸다. 물속에서 그리고 물 밖에서 바다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A close-up photograph of a dense field of small, star-shaped flowers in shades of red, pink, and orange. The flowers are tightly packed, creating a textured, almost abstract pattern. A white rectangular border is overlaid on the image, framing the text.

#04

국가를 막아선 사진들

Photographs That Stop

the Country



#04

국가를 막아선 사진들

Photographs That Stop the Country

‘민군복합 관광미항’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제주해군기지는 2016년 완공 후 단 두 차례의 크루즈 입항만을 가졌다. 애초부터 제대로 된 항로 없이 해군기지를 먼저 지어놓은 후에 크루즈 입항이 어렵다며 연산호 군락을 ‘암초’라 운운하며 문화재청에 준설을 위한 현상변경신청을 냈다. 이에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TFT>은 2018년 11월, 2019년 8월 총 네 차례의 조사를 가졌다. 조사결과 30도 변경 항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범섬 지역을 가로지르는 항로로,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 군락이 있는 저수심 지역임을 확인했다. 분홍바다맨드라미, 큰수지맨드라미, 밤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황금수지맨드라미, 둥근컵산호, 둔한진총산호, 직립진총산호, 꽃총산호, 빨강별총산호, 빛단풍돌산호, 거품돌산호, 해송, 긴가지해송, 호리병말미잘, 큰산호말미잘 등 다양한 산호종류와 다수의 미확인종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연산호 사진과 영상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엄청나게 대단하지도 않은 연산호 ‘사진’이 크루즈 준설을 막았다. 하루아침에 900그루의 나무가 사라진 비자림로 도로확장 공사에서는 팔색조 ‘사진’으로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 사진이 이렇게도 대단했던가. 아니면 국가 혹은 국가 시스템이 이리도 허술하고 이상한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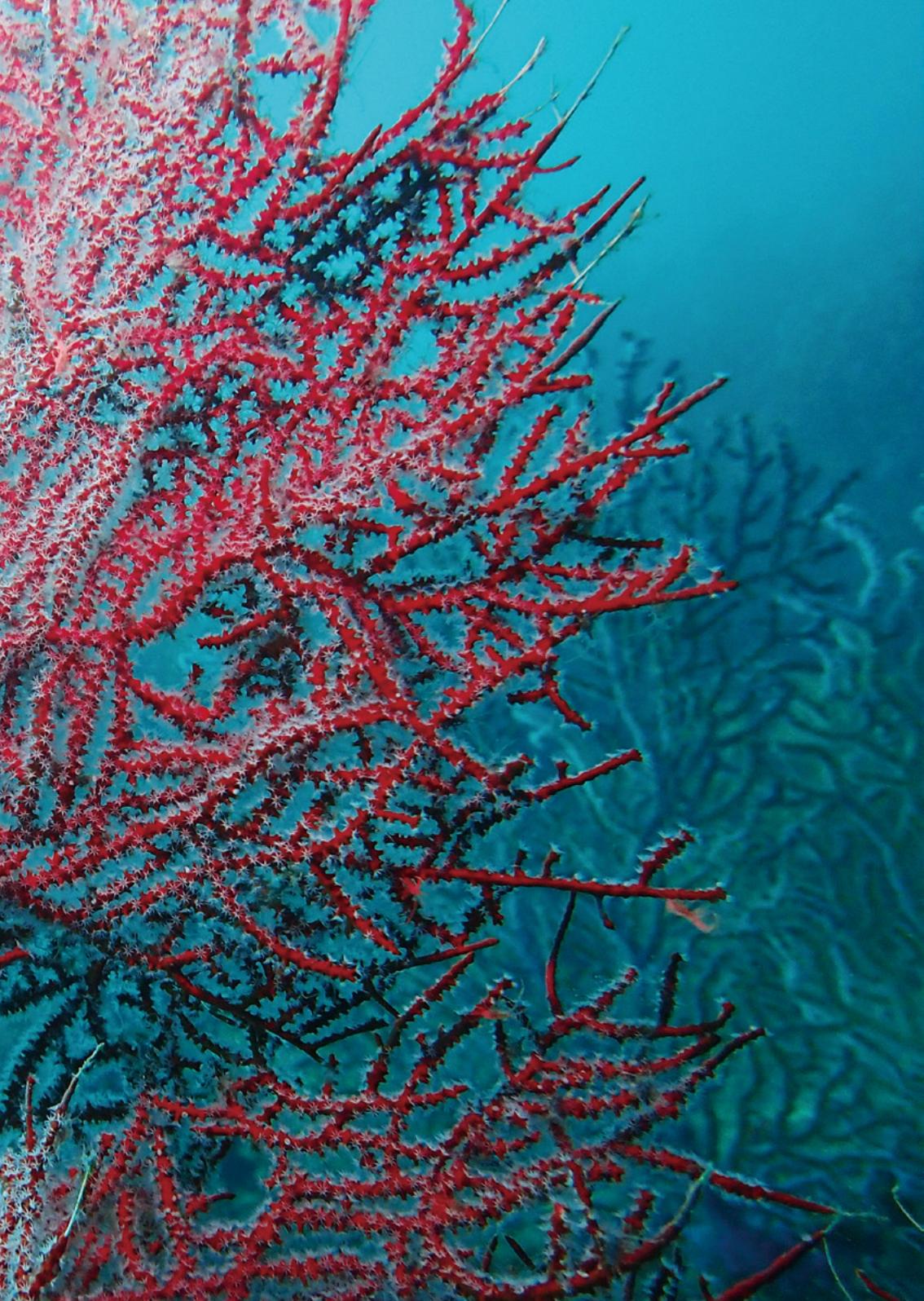
(*2019서울사진축제 프로그램 <리서치쇼>에 참여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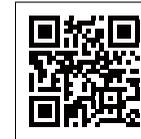




제주 코랄
인스타그램 큐알 코드



『강정 앞바다, 연산호 훼손 실태 보고서』
다운 받을 수 있는 큐알 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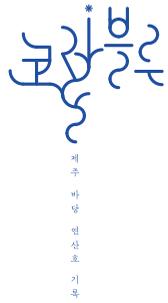


강정친구들
정기 후원 신청하기 큐알 코드

<강정친구들>은 강정생명평화운동에 참여하고,
제주 평화의 섬 실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제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마을 주민회'와 '강정 평화 활동가'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강정친구들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 유지됩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1-0121-1143-91 (강정친구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JFriends/>
인스타그램 <http://www.instagram.com/gangjeong79s>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gangjeong79s>



기획/편집/사진/글 최혜영
hiyoung0322@gmail.com

제작/문의 강정친구들
070-4129-6179

지원 아름다운재단 강정친구들 제주연산호조사TFT

발행일 2021년 1월

디자인 사과나무

인쇄 예진원색인쇄

